

마쓰노야마 온천의 “명탕”

마쓰노야마 온천은 도카마치의 호젓한 산간에 자리잡고 있는 역사 깊은 온천입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은 ‘일본 3 대 약탕’ 중 하나로 꼽히며, 14 세기부터 그 효능이 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온천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법률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19 가지 미네랄 중 1 가지라도 충분한 농도로 포함하고 있으면 온천으로 인정합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의 수질은 8 가지 미네랄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며, 그 중에서도 항진균성과 항균성이 있는 붕산의 함유량이 일본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리튬, 스트론튬, 브롬, 요오드, 불소, 메타붕산, 메타규산과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특히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랄의 높은 농도가 효능을 더욱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의 수질은 인간의 세포 내보다 높은 농도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고장성이라고 불리는 상태) 자연스러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체내로 미네랄이 쉽게 흡수됩니다.

또한 마쓰노야마 온천의 물은 매우 뜨거워 입욕용으로 찬물을 섞기 전 원천의 온도는 98℃에 달합니다. 약 1200 만 년 전 2 개의 해저 플레이트 사이에 갇힌 염수 저장층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입욕을 했을 때 마쓰노야마 온천의 뜨거운 물과 물에 몸이 뜨는 부력 덕분에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온천의 치유에 대한 평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